

세계의 명품 다큐 TV로 본다



▲ '앤서니 워너 : 선거 이야기'
▼ '조나스의 뒷마당 서커스'

▲ '존 버거의 세계'
▼ '스포츠키드-바리셀라'

'다큐를 통해 세상을 만나다.'

지난 2004년 처음 시작된 EBS 국제다큐영화제(EIDF)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시도로 화제를 모았다. 지상파 TV 채널에서 일주일간 정규 프로그램 대신 다큐멘터리 필름을 내보내는 컨셉은 다큐멘터리 팬들의 환영을 받았다. 영화관까지 가는 발품을 파는 대신, 집에서 편안히 TV로 세계 각국의 명품 다큐멘터리를 감상할 수 있는 건 호사다.

EBS 국제다큐영화제(EIDF 2016)가 올해도 계속된다. 올해의 주제는 '다큐로 보는 세상'이다. 22일부터 7일간 열리는 영화제는 TV를 통해서 매일 약 8시간 동안 진행되며 서울 모모하우스 등 외부 상영관에서도 만날 수 있다. 세계 30개국 53편의 명품 다큐멘터리가 상영된다.

올해 주제는 '다큐로 보는 세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소재를 주제로 제작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 프로그램 추천작
'부서진 기억들'(팀 슬레이드·2016)은 탈레반과 IS가 저지르고 있는 문화유산 파괴 행위가 왜 일어나는지,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재건하려는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보여주는 작품이다.
'앤서니 워너 : 선거 이야기'(조지 크리

EBS 국제다큐영화제 2016 '다큐로 보는 세상'

정치·경제·사회·국제·교육·문화 등 다양한 주제

22~28일 매일 8시간 세계 30개국 53편 상영

그만·2016)는 정치 이야기다. 성스캔들로 고위 공직에서 내려와 2년 뒤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한 앤서니 워너의 재기와 몰락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2016년 선댄스영화제 미국 다큐멘터리 부문 심사위원 대상 수상작이다.

'인생은 백살부터'(오사블랑크·2015)는 스웨덴에 사는 다그뉘 할머니의 이야기다. 동생들을 돌보느라 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녀가 100살이 된 후 다가올 끝을 준비하기 보다는 컴퓨터를 배우고 블로그를 시작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감동적이다.

'살아 숨쉬는 고전 : 할리우드의 거장들'(대니얼 레임·2016)은 '십계'의 미술감독 엘버트 노자키, '내일을 향해 쏴라'를 만든 콘래드 홀 감독 등 영화계 거장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다.
'존 버거의 세계'(콜린 맥케이브·틸타 트윈트·2015)는 미술비평가이자 소설가,

다큐멘터리 작가, 화가로 활동하는 세계적인 지식인 존 버거를 틸타 스윈튼을 비롯한 5명이 만나 5년에 걸쳐 촬영한 다큐멘터리다.

그밖에 '가마우지 : 소년의 여름'(피비오 노비오·2016)은 열두살 두 소년의 이야기를 픽션과 다큐를 섞어 그려내고 있다.

▲ 교육, 문화, 정치 등 주제 다채
올해는 '교육'을 주제로 한 작품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연작으로 방영되는 '학교 가는 길'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미주 등 세계 각국 아이들의 등굣길을 2년간 담은 다큐물이다.

시리즈물 '스포츠키드'는 5500명중 선발돼 러시아의 가장 명망 높은 발레학교에서 공부하며 하나의 꿈을 공유하는 두 자매의 이야기를 그린 '바리셀라'를 비롯해 바이크 챔피언, 댄서 등의 꿈을 꾸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또 '코치'는 중국의 체조, 케냐의 육상

종목을 비롯한 코치들의 삶을 그리고 있으며 '조나스의 뒷마당 서커스'는 유랑극단에서 태어나 서커스를 계속하는 꿈을 꾸는 13살 조나스의 이야기를 따라간다.

김민지 감독의 '뱀돼지 사냥'은 민가로 내려오는 뱀돼지 때문에 고통을 받던 통영에 유명한 뱀돼지 사냥꾼이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늘을 향한 여정'은 '검은 여름'으로 불리는 1986년 여름 사건에서 시작된다. K2 등반을 위해 산에 올랐던 원정대 중 13명이 죽는 비극이 일어나고 약 30년 뒤, 유족인 감독이 다른 유족들과 함께 K2 베이 스킵에 오르는 내용 담고 있다.

또 이슬람국가(IS)와 싸우는 쿠르드족 무장투쟁운동단체 소속 여성 전사의 일상과 투쟁을 소개하는 '장미의 땅 : 쿠르드의 여전사들' 등 국제적 문제를 다룬 화제작도 눈길을 끈다.

그밖에 '백라이트 : 스마트 세상'은 의학기기에서부터 생활에 쓰이는 간단한 장치까지 혁신 기술의 기원을 탐구하고, 누가 이런 개발에 자금을 대고 누가 이 기술로 이익을 얻는지를 살펴본다.

자세한 시간표는 영화제 홈페이지(www.eidf.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원중 데뷔 30년 공연 'With 광주'

10월 11일 김대중센터

시민 100인추진위 발대



김원중

올해는 '직녀에게'의 가수 김원중 씨가 데뷔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기타 하나 메고 '바위섬'을 부르며 가수가 된 후 30년 세월 동안 그는 수많은 무대에 섰고, 매달 한차례 열리는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을 통해 북한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왔다. 전국의 뮤지션들과 함께 광주 5월의 아픔을 노래한 '금남로 추모 거리 공연' 역시 그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무대다.

30년을 기념해 준비한 행사는 두 가지. 6집 음반 '걸어온 길, 걸어갈 길' 발매와 기념콘서트다.

오는 10월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데뷔 30년 기념공연은 그와 그를 아끼고 지원해온 이들이 함께 꾸미는 행사다.

콘서트 준비를 위해 지난 20일 광주 서구 Y웨딩컨벤션에서 '김원중 데뷔 30년 기념 콘서트'를 준비하는 모임 광주가 즐겁자는 '작당' 발대식이 열렸다.

한 세대 동안 민주·평화·인권·통일 현장에서 큰 울림으로 노래한 김 씨의 생각과 활동에 걸을 같이 해온 100인이 참여한 행사였다.

이날 '김원중 30년' 영상과 그의 공연을 함께 지켜본 발대식 참가자들은 기념공연을 채울 내용도 함께 고민했다.

참가자들은 30주년 기념 공연 제목을 'With 광주'로 정했다. 또 5·18광주 민중항쟁 당시 시민들이 세운 '광주공동체' 재현을 목표로, 시민제안·공동창작 방식으로 공연을 준비하기로 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형철 교수, 조은 교수, 김진혁 교수, 한강 소설가

광주트라우마센터 '치유의 인문학' 신형철 교수 등 강연

광주트라우마센터 '치유의 인문학' 강연에 신형철 문학평론가를 비롯한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 철학자 강신주,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소설가 한강 등이 강사로 나선다.

광주트라우마센터는 "오는 23일 오후 7시 신형철 문학평론가를 초청해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올해 여섯 번째 '치유의 인문학'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몰락의 에디가', '느낌의 공중제', '정확한 사랑의 실험'의 저자 신형철 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는 이날 '타인-되기'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신 교수는 "타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타인이 되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며, 이것은 문학의 영원한 고민이자 숙제다"며 "동정과 공감의 개념을 중심으로 '타인-되기'로서의 문학에 대해 성찰하

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9월 일곱 번째 '치유의 인문학'에는 '절반의 경험, 절반의 목소리', '성 해방과 성정치' 등을 펴내고 한국여성학회장을 역임한 대표적 여성운동가 조은 명예교수가 강연을 이어간다.

이후 철학자 강신주(10월)와 EBS 전 PD로 '지식채널e'를 제작했던 김진혁 한예중 교수(11월), 만부커상을 수상한 한강(12월) 등이 차례로 강연할 예정이다.

한편 '치유의 인문학'은 광주를 치유 공동체, 인권과 평화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광주 서구가 주최하고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주관하는 무료 공개강연이다.

홈페이지(tnt.gwangju.go.kr)에서 사전접수도 가능하다. 문의 062-601-1974.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 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별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참숯구이 민물장어와 숙지환 삼계탕을 개시합니다.
- 솔향기정식,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숙지환삼계탕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참숯가마 찜질방 / 족욕탕 / 참숯구이 민물장어 & 돼지갈비 전문점 / 노래방 & 동전노래방